

토론토 류현진, 에이스 랭킹 7위 “여전히 훌륭해”



1위 뉴욕 메츠 디그롬 · 2위 양키스 케리트 콜
저스틴 벌랜더-맥스 슈어저-잭 플래허티順
LA다저스 클레이튼 커쇼 대신 불러가 14위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33)이 팀 내 에이스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이 미뤄지고 있지만 팀을 대표하는 투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CBS스포츠는 16일(한국시간) 2020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30개 팀의 에이스 파워랭킹 순위를 발표했다.

토론토 에이스로 이름을 올린 류현진은 전체 7위에 랭크됐다.
매체는 “류현진은 지난 두 시즌 간 21승 8패, 평균자책점 2.21, 탈삼진 252개, 볼넷 36개를 기록했다”면서 “류현진은 33세가 됐지만 기량 하락을 걱정할 나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훌륭한 에이스”라고 칭찬했다.

지난해 LA 다저스에서 30경기 182%이닝에 나와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의 성적을 낸 류현진은 2020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에 FA 계약을 맺었다.
CBS스포츠가 꼽은 최고의 에이스는 뉴욕 메츠의 제이콥 디그롬이었다. 매체는 “디그롬은 야구에서 최고의 투수”라고 찬사를 보냈다.
2018~19년 2시즌 연속 사이영상을 받은 디그롬은 지난해 11승8패, 평균자책점 2.43의 성적을 냈다.
2위는 뉴욕 양키스의 케리트 콜이었다. 이어 3위부터 저스틴 벌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 잭 플래허티(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순이었

다.
류현진이 떠난 다저스는 14위에 올랐다. 좌완 클레이튼 커쇼 대신 우완 영건 워커 불러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CBS스포츠는 “불러가 커쇼를 대신해 에이스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통의 강호인 보스턴 레드삭스는 26위에 그쳤다. 매체는 “데이빗 프라이스(다저스)는 트레이드 됐고, 크리스 셰일은 아프다”면서 “나단 에오발디 또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있지만, 에오발디가 건강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

여자골프스타 총출동...한국여자오픈 내일 개막

고진영 · 최혜진 · 이보미 등 출전...1~2R 팬 투표로 이색 조편성

한국 여자골프 최고의 선수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번째 메이저 대회 기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0억원)에서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한국여자오픈이 오는 18일부터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6929야드)에서 나흘간 열린다.
KLPGA투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월에 개막, KLPGA 챔피언십, E1 챔피언십,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S-OIL 챔피언십 등 4개 대회가 진행됐다.
코로나19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등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KLPGA투어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도 대거 출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국내외와 해외파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우선 국내 최고의 선수 최혜진(21·롯데)을 필두로 E1 챔피언십 우승자 이소영(23·롯데), KLPGA 챔피언십 챔피언 박현경(20·한국토지신탁) 등의 활약이 주목된다.
최혜진은 지난 주 기상 악화로 축소 진행된 S-OIL 챔피언십에서 1위에 올랐다.

36홀까지 진행되지 않아 공식 대회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최혜진은 1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몰아치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번 시즌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진입한 최혜진의 첫 우승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소영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첫 3개 대회에서 우승을 포함해 모두 톱10에 들었다. S-OIL 챔피언십에서 100위로 부진했지만 대상포인트, 상금순위에서 1위, 평균타수 2위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박현경은 시즌 첫 메이저대회였던 KL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E1 챔피언십 오픈에서 컷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이후 2개 대회에서 모두 20위 안에 들면서 시즌 2번째 우승을 노린다.
이외에 디펜딩 챔피언 이다연(23·메디힐)을 비롯, 장하나(28·BC카드), 임희정(20·한화큐셀), 신인 유혜란(19·SK네트웍스) 등도 우승 경쟁에 언제든지 뛰어 들 수 있다.
LPGA투어에서는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솔레이), 6위 김세영(27·미래에셋), 10위 이정은(24·대방건설), 13위 김효주(25·롯데) 등이 나선다. 전 세계랭킹 1위

이자 2009년 US여자오픈 챔피언 유소연(30·메디힐), 지은희(34·한화큐셀)도 출전한다.
고진영은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 출전했지만 공동 45위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발목 부상으로 S-OIL 챔피언십에 불참했지만 한국여자오픈에는 정상 출전한다. 세계 정상에 오른 고진영이지만 아직 한국여자오픈 우승 경험이 없어 각오가 남 다를 것으로 보인다.
재개된 KLPGA투어에서 국내외와 미국과는 모두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보미(32), 배선우(26), 안선주(33) 등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은 우승이 없다. 안선주는 2007년 한국여자오픈 우승 경험도 있어 13년 만에 챔피언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회는 1·2라운드 일부 조편성을 팬 투표로 꾸렸다. 그 결과 한국, 미국, 일본투어에서 활약 중인 선수를 대표해 최혜진, 고진영, 이보미가 같은 조에 편성됐다. 최근 3년간 한국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한 이다연(2019년)-오지현(2018년)-김지현(2017년)도 함께 경기하고 2000년생 트리오 임희정-조아연(20·볼빅)-박현경도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英 매체 “김민재, 아스널에 딱 어울려”

“아르테타 감독 철학에 부합, 다비드 루이스 대체자 적합”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수비라인의 핵심인 김민재(24)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영국의 한 매체는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말로 아스널에 어울린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국의 HITC는 16일(한국시간) “최근(포르투갈 매체)아 불라는 아스널과 왓포드(이상 잉글랜드) 그리고 FC포르투(포르투갈)가 베이징 귀안(중국) 소속의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김민재는 아직 중국 클럽과의 계약이 1년6개월 남아 있으나 유럽 클럽들의 진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민재는 토트넘의 손흥민, 잘츠부르크의 황희찬과 함께 현재 가장 주가가 높은 한국 선수로, 유럽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한 HITC는 “이미 30회 A매치 경험을 지닌 이 젊은

수비수는 ‘괴물’ 한국의 반 다이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고 조명했다.
매체는 “이 젊은 수비수는 후방에서 공을 안전하게 처리하며 중원으로 패스 연결이나 전방을 향하는 통패스 능력도 갖췄다”는 말로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칭찬한 뒤 “김민재 스타일은 아르테타 감독의 축구철학에 부합한다”는 표현으로 아스널을 향해 추천했다.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센터백 다비드 루이스의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아스널의 현실 그리고 지난 잠재력에 비해 몸값이 그리 높지 않은 ‘가성비’도 설명했다.
HITC는 “김민재는 올 여름 혹은 내년 팀을 떠날 수 있는 다비드 루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라고는 하지만, 그의 이적료로 추정되는 1350만 파운드(206억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호날두, 뜬금없는 첼시 이적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메르카토’ “예상 이적료 1640억?”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때 아닌 잉글랜드 이적설이 불거졌다. 프랭크 램퍼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첼시가 호날두 영입에 1억2000만유로(약 1640억원)를 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메르카토’는 15일(현지시간) “첼시가 호날두 영입을 노리고 있다. 유벤투스에 1억2000만유로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첼시가 호날두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멘데스와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1억2000만유로는 유벤투스

가 2년 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지불했던 이적료(11억유로)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링 리스본(포르투갈)에서 뛰었던 호날두는 2003년 알렉스 퍼거슨 당시 맨유 감독에게 발탁돼 맨유로 이적했다. 맨유에서 월드컵클래스로 성장한 호날두는 2009년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 292경기에서 311골을 넣으며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호날두는 지난 2018~19시즌을 앞두고 다시 이탈리아 최고 클럽으로 꼽히는 유벤투스로 이적했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26골을 넣는 등 여전히 기량을 뽐내고 있다.

자가격리 해제 앞둔 강정호 23일 ‘사회’ 기자회견 연다

국내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3)가 ‘사회’ 기자회견을 연다.
강정호의 소속사 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는 16일 강정호의 기자회견을 오는 23일 서울 상암 스타랜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다. 2주 간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은 오는 19일. 자가격리를 마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는 셈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25일 상설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복귀를 원하는 강정호에게 유기실격 1년,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일어난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다.
앞서 두 차례(2009, 2011년) 더 유준원이 적발된 사실까지 밝혀져 법원 앞에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들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호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팬들 앞에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들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호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팬들 앞에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들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인, 2년 연속 ‘골든보이 어워즈’ 100인 후보에

이강인(19·발렌시아)이 2년 연속 ‘골든보이 어워즈’ 100인 후보에 포함됐다.
영국 매체 스포츠비블은 16일(한국시간) 2020 골든보이 어워즈 후보 100명을 공개했다.
이강인은 지난해에도 후보 100인에 들어 최종 20인에도 포함될 바 있다. 지난해 이강인은 20세 이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골든볼을 차지했다.

골든보이 어워즈는 2003년 이탈리아 매체 투토 스포르트가 제정한 상으로 기자단 투표를 통해 21세 이하 선수 중 그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한다.
과거 웨인 루니, 라힘 스텔링(이상 잉글랜드),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아구에로(이상 아르헨티나), 폴 포그바, 칼리안 음바페(이상 프랑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수상한 바 있다.